

것이다. 카멜레온은 주위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호색을 띠어 하루에도 열두 번씩 피부 색깔이 변한다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다음의 日月說은 易字가 日과 月의 會意文字라고 본 데서 유래한 것이다. 日은 陽을, 月은 陰을 상징하므로 결국 陰陽에 입각하여 日과 月을 상하로 결합하였다는 이론이다. 易을 變易, 交易, 博易의 뜻으로 볼 때 日月說은 《周易》에서 理想으로 여기는 것을 가장 바르게 표명하였다고 보여진다.

## 2. 易의 원리

易의 原理는 하나의 眞理인 太極에서 陰陽의 兩儀가 나오고 兩儀에서 四象이, 四象에서 八卦가 나왔으며, 이 八卦를 거듭하여 64卦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繫辭傳>에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았다.” 하였다.

太極은 哲學的으로 매우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용어이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宇宙 萬物의 生成의 근원이 되는 本體(진리)이며, 萬物이 생겨난 뒤에는 모든 물건의 本性이 되고 人間이 행하여야 할 道理가 되는 바, 不易의 眞理란 바로 이 太極을 의미한다. 筮法에서도 50개의 蓍草 중에 우선 하나를 뽑아 제쳐 놓고 占筮를 시작함은 바로 이 太極을 상징한 것이다.

이 太極에서 분화된 것이 兩儀인 바, 兩儀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陰과 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陽을 표시하는 陽爻와 陰을 표시하는 陰爻가 생기게 되었다. 陽을 대표하는 것은 하늘이요, 陰을 대표하는 것은 땅이다. 天地創造의 과정은 하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陽爻는 하나를 의미하는 ‘一’로 표시하고, 땅은 하늘에 이어 두 번째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陰爻는 둘을 의미하는 ‘--’로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兩儀에서 다시 분화된 것이 四象으로 少陽과 老陽, 少陰과 老陰을 가리킨다. 즉 兩儀의 위에 각각 陽爻와 陰爻를 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陽中の 陽을 老陽, 陽中の 陰을 少陰, 陰中の 陽을 少陽, 陰中の 陰을 老陰이라 하며, 老陽을 太陽, 老陰을 太陰이라고도 한다.

八卦는 四象의 위에 또다시 陽爻와 陰爻를 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여덟 卦이기 때문에 명칭한 것인데, 易의 기본이 된다. 太陽의 위에 陽爻를 가하면 乾(☰)이 되고 陰爻를 가하면 兌(☱)가 되며, 少陰의 위에 陽爻를 가하면 離(☲)가 되고 陰爻를 가하면 震(☳)이 되며, 少陽의 위에 陽爻를 가하면 巽(☴)이 되고 陰爻를 가하면 坎(☵)이 되며, 老陰의 위에 陽爻를 가하면

艮(☶)이 되고 陰爻를 가하면 坤(☷)이 된다. 한 卦는 세 개의 爻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三才 곧 天·地·人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맨 아래의 初爻는 地位, 두번째인 中爻는 人位, 맨 위의 上爻는 天位가 된다. 八卦에는 각기 象이 있는 바, 乾은 하늘[天], 兌는 못[澤], 離는 불[火], 震은 우레[雷], 巽은 바람[風], 坎은 물[水], 艮은 산(山), 坤은 땅[地]이 되며, 성질로 보면 乾은 강함과 굳셈, 兌는 기뻐함, 離는 붙음, 震은 動함, 巽은 들어감, 坎은 빠짐, 艮은 그침, 坤은 순종함이 된다. 또 이것을 家族에 비유하면 乾은 父, 兌는 少女, 離는 中女, 震은 長男, 巽은 長女, 坎은 中男, 艮은 少男, 坤은 母가 된다.

여기에 다시 乾卦로부터 차례로 위에 八卦를 가하면 6畫卦가 되어 乾卦(☰)로부터 未濟卦(☵)까지의 64卦가 이루어지는 바, 아래의 것을 下卦 또는 內卦라 하고 위의 것을 上卦 또는 外卦라 하며, 또한 內卦를 貞, 外卦를 悔라 한다.(처음 점을 쳐서 얻은 本卦를 貞이라 하고, 爻가 변하여 바뀐 之卦를 悔라고도 한다.)

### 3. 《周易》의 構成과 內容

《周易》은 卦와 卦辭, 爻辭 및 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卦에는 卦象이 그려져 있고 옆에는 乾上乾下, 또는 乾上坤下 등의 작은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八卦로써 上下卦를 밝힌 것으로, 곧 64卦의 乾卦는 위의 八卦의 乾이고 아래 역시 乾임을 나타낸 것이며, 否卦는 위의 八卦의 乾이고 아래는 坤임을 나타낸 것이다. 卦辭는 卦에 게시되어 있는 象을 해석한 것으로 일명 象辭라고도 하는 바, 이 卦辭가 없이는 그 卦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周易》은 일단 이 卦辭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여겨진다. 卦辭는 卦名의 뜻으로부터 陰陽의 消長과 剛柔의 德을 가지고 人事에 전주어 吉凶을 서술하였으며, 爻辭는 각 爻가 점하고 있는 환경(위치)과 시간적인 개념의 제시 및 事案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周易》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卦辭와 爻辭는 千變萬化하는 시간과 환경에 대처하는 神聖한 啓示이다. 어떤 卦, 어떤 爻에 고정된 도리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人間의 思想이 맥맥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十翼이란 명칭은 前漢 때에 씌어진 緯書 《易乾鑿度》에서부터 비롯된다. 翼은 羽翼한다는 뜻으로 經文의 의미를 부연설명함을 의미한다. 十翼은 孔子의 作으로 전하고 있는 바, 〈象傳〉 上下, 〈象傳〉 上下, 〈繫辭傳〉 上下, 및 〈文言



傳〉·〈說卦傳〉·〈序卦傳〉·〈雜卦傳〉 등의 10편을 말한다. 이들 傳은 본래 經文의 뒤에 따로 수록되어 있었으나, 漢代에 費直이 처음으로 卦의 아래에 붙였고 뒤에 鄭玄과 王弼이 다시 卦爻의 아래에 붙였으며, 〈文言傳〉 역시 乾卦와 坤卦의 뒤에 옮겨 놓은 것으로 전한다. 〈彖傳〉은 內卦와 外卦의 象 및 爻의 剛柔의 德과 卦名을 가지고 卦辭를 해설하였으며, 〈象傳〉은 卦 전체의 意義를 해설한 大象과 爻辭의 意義를 해설한 小象으로 이루어져 있다. 大象에는 上卦와 下卦가 각기 상징하는 象과 天·地·雷·風 등의 상호관계 또는 卦名과 人間과 연관시켜 道理의 敎訓을 밝힌데 반하여, 小象에는 저마다의 爻位에 따른 신분과 道德 실천을 서술하고 있다.

〈繫辭傳〉은 易經의 성립 근거와 그 기능에 대하여 서술함을 위시하여 易經과 哲學, 經文의 해석법 및 기타에 관하여 總論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文言傳〉은 乾·坤 두 卦의 卦辭와 爻辭에 대해 君子의 道德 실천을 바탕으로 그 意義를 강조하였다. 특히 乾卦에 역점을 두었고 韻文으로 되어 있는 바, 陰陽의 消長에 따라 爻辭를 해석한 점은 〈彖傳〉과 흡사하고 道德 실천의 관점에서 爻辭를 해석한 점은 小象과 흡사하다 하겠다.

〈說卦傳〉은 《周易》의 구성 원리를 설명한 總論 부분과 八卦가 상징하는 物象을 열거한 細論 부분으로 성립되어 있다. 細論에는 經文을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들어 있는 바, 이는 아마도 占筮할 때에 사용된 대목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그리고 總論은 〈繫辭傳〉을 집약한 감이 있다.

〈序卦傳〉은 卦의 排列順序를 萬物의 生成과 人間의 生活에 연관시켜 해설하였으며, 〈雜卦傳〉은 卦의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意義面에서 서로 상반되는 卦를 대조시키면서 人事面에서의 특색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바, 역시 韻文이다.

#### 4. 《周易》의 註釋書

《周易》의 註釋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宋代의 哲學者인 伊川 程頤가 지은 《易傳》과 朱子の 《本義》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周易》은 일찍부터 두 종류의 註釋書가 있었으니, 今易과 古易이 그것이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十翼은 원래 經文의 뒤에 있었는데, 費直과 王弼 등이 〈彖傳〉과 〈象傳〉, 〈文言傳〉을 卦辭와 爻辭의 아래에 붙였는 바, 歷代로 이를 따르고 今易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宋代의 晁說之와 呂祖謙은 이것은 易經의 眞면목이 아니라

하여 古本 《周易》을 다시 만들고 古易이라 칭하였다. 程伊川은 今易의 체제를 따르면서 儒家의 道德的인 면을 강조하여 《易傳》을 지었으며, 朱子는 易은 본래 卜筮의 책인 만큼 道德을 강조한 十翼은 《周易》을 이해하는 데 일조는 될 지언정 文王과 周公이 卦辭와 爻辭를 지은 本義는 아니라 하여 古易을 따라 占筮에 치중하여 本義를 지었다. 《易傳》은 程伊川이 지은 것이라 하여 程傳으로 약칭하기도 하는 바, 明나라 永樂 연간에 胡廣 등은 大全本을 편찬하면서 程傳을 기본으로 하고 《本義》를 함께 삼입하고는 ‘《周易傳義大全》’이라 이름하였다. 朝鮮朝의 內閣本은 大全本을 그대로 따랐는 바, 本書 역시 內閣本의 체제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 5. 《周易》의 用語

易에는 특수한 用語가 있는 바, 易을 읽으려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익숙히 알아야 하므로 그 대략을 소개하겠다.

### ① 卦爻의 명칭

八卦를 小成卦라 하고 64卦를 大成卦라 한다. 大成卦 역시 天·地·人의 三才로 나누는데, 初爻와 二爻는 地位, 三爻와 四爻는 人位, 五爻와 上爻는 天位가 된다.

爻는 卦를 이루는 기본인데, 陰爻를 六, 陽爻를 九라 한다. 卦를 아래로부터 그리기 때문에 爻 역시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세는 것이 원칙이다. (초목의 싹이 아래의 땅에서부터 위로 자라듯) 그러므로 제일 아래 爻가 陽이면 初九, 陰이면 初六이라 하고 이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 九二나 六二, 九三이나 六三, 九四나 六四, 九五나 六五라 하며 맨 위의 爻를 上九 또는 上六이라고 한다.

九로써 陽爻를 나타내고 六으로써 陰爻를 나타내는 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五行의 生數인 1·3·5의 홀수 즉 陽數를 합쳐 9로 하여 陽爻로 삼고 2·4의 짝수 즉 陰數를 합쳐 6으로 하여 陰爻로 삼은 것이라 하며, 揲蓍할 때에 9는 老陽, 7은 少陽, 6은 老陰, 8은 少陰이 되는데, 老陽은 변하여 陰이 되고 老陰은 변하여 陽이 되며 少陰과 少陽은 변하지 않는 바, 卦는 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老陽의 數인 9를 陽으로, 老陰의 數인 6을 陰으로 삼은 것이라 하기도 한다.



## ② 互卦

卦를 해석하는 데에는 內卦와 外卦의 卦象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卦象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二爻로부터 四爻까지, 三爻로부터 五爻까지의 象을 취하여 보충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互卦’인 바, 二爻부터 四爻까지를 ‘內爻卦’, 三爻부터 五爻까지를 ‘外爻卦’라고 일컫는다. 그리하여 두 互卦를 겹쳐 이루어지는 卦를 ‘互體’라고 한다.

## ③ 爻의 剛柔, 中正과 이에 따른 占辭

陽爻를 ‘剛’, 陰爻를 ‘柔’라 하며, 二爻와 五爻를 ‘中’이라고 한다. 二는 內卦의 中이고 五는 外卦의 中이기 때문이다. 또한 陽爻가 陽位인 初·三·五에 위치하고 陰爻가 陰位인 二·四·上에 위치한 것을 ‘正’이라고 한다. 그러나 陽爻가 陽位에 있는 九三爻는 重剛이라 하여 너무 지나친 강함이 된다. 九五爻 역시 重剛이라고 할 수 있으나 中德이 있어 지나치지 않은 것이 되며, 初爻와 上爻는 지위가 없는 자리이다. 人間에게 있어 剛은 才質과 意志가 굳세고 강함이 되며 柔는 유순하고 나약함이 된다. 中은 中道이고 正은 바른 마음과 위치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체로 中正인 것은吉하고 中正하지 못한 것은凶하다. 六二와 九五는 中正을 겸하지만 그 나머지는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正보다는 中을 더욱 중시한다. 64괘 가운데 水火既濟(☵☲)는 여섯 爻가 각기 中正을 얻은 대표적인 卦이다. 즉 六二와 九五가 모두 中正을 얻었고 初와 三, 四와 上이 모두 正을 얻었기 때문이다.

卦의 뜻과 爻의 剛柔, 中正에 따라 吉凶, 悔吝과 有咎, 無咎가 결정된다. 悔는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이고 吝은 부족한 것으로 수치스럽거나 곤궁함을 의미하며, 咎는 허물이나 재앙으로 無咎는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때로는 자신이 지은 잘못이어서 남을 탓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 ④ 應·比·承·乘

6爻 상호간의 관계에 관해 사용하는 述語이다. ‘應’이란 上卦와 下卦의 陽爻와 陰爻가 서로 應하는 것으로, 初와 四, 二와 五, 三과 上이 陰陽이 각기 다를 경우 이를 應, 또는 正應, 應與라 한다. 즉 初九와 六四, 初六과 九四, 九二와 六五, 六二와 九五, 九三과 上六, 六三과 上九가 應인데, 易은 陰陽相應을 중시하여 일반적으로 應이 있는 것을 좋게 여기며, 그 중에도 六二와 九五의 相應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二는 신하이고 五는 군주이며 모두 中正을 얻었기 때문이다. ‘比’

는 上下에 서로 이웃한 爻를 이른다. 즉 初와 二, 二와 三, 三과 四, 四와 五, 五와 上은 서로 親比하는 爻이다. ‘承’은 陰爻가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陽爻를 받드는 것이고, ‘乘’은 陰爻가 陽爻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인 바, 陰爻가 陽爻를 받드는 것은 순종함이어서 좋으나 陽爻를 타고 있는 것은 위험한 뜻이 된다. 그리고 陽爻가 陰爻 위에 있을 경우에는 履(밟고 있음)라고 칭한다.

## 凡例

周易은 上下經二篇과 孔子十翼十篇이 各自爲卷이러니 漢費直이 初以 象象釋經하여 附於其後하니 鄭玄, 王弼이 宗之하고 又分附卦爻之下하고 增入乾坤文言하여 始加象曰, 象曰, 文言曰하여 以別於經而繫辭以後는 自如其舊라 歷代因之하니 是爲今易이니 程子所爲作傳者 是也라 自嵩山晁說之 始考訂古經하여 釐爲八卷이러니 東萊呂祖謙이 乃定爲經二卷, 傳十卷하니 是爲古易이니 朱子本義從之라 然程傳, 本義 旣已竝行이요 而諸家定本이 又各不同이라 故로 今定從程傳元本하고 而本義를 仍以類從호되 凡經文은 皆平行書之하고 傳義則低一字書以別之하며 其繫辭以下는 程傳旣闕일새 則壹從本義所定章次하여 總釐爲二十四卷云이라

## 乾

乾은 元, 亨, 利, 貞하니라

【本義】 元亨하고 利貞하니라

【傳】 上古聖人이 始畫八卦하니 三才之道備矣요 因而重之하여 以盡天下之變이라 故로 六畫而成卦라 重乾爲乾이니 乾은 天也니 天者는 天之形體요 乾者는 天之性情이라 乾은 健也니 健而无息之謂乾이라 夫天은 專言之則道也니 天且弗違是也라 分而言之면 則以形體謂之天이요 以主宰謂之帝요 以功用謂之鬼神이요 以妙用謂之神이요 以性情謂之乾이라 乾者는 萬物之始라 故爲天, 爲陽, 爲父, 爲君이라 元亨利貞을 謂之四德이니 元者는 萬物之始요 亨者는 萬物之長이요 利者는 萬物之遂



요 貞者는 萬物之成이라 唯乾坤이 有此四德이요 在他卦則隨事而變焉  
이라 故로 元은 專爲善大요 利는 主於正固요 亨貞之體는 各稱其事하  
니 四德之義 廣矣大矣라

【本義】 六畫者는 伏羲所畫之卦也라 一者는 奇也니 陽之數也요 乾者는  
健也니 陽之性也니 本註乾字는 三畫卦之名也라 下者는 內卦也요 上者  
는 外卦也니 經文乾字는 六畫卦之名也라 伏羲仰觀俯察하여 見陰陽有  
奇耦(偶)之數라 故로 畫一奇以象陽하고 畫一耦以象陰하며 見一陰一陽  
有各生一陰一陽之象이라 故로 自下而上하고 再倍而三하여 以成八卦하  
며 見陽之性健而其成形之大者爲天이라 故로 三奇之卦를 名之曰乾而擬  
之於天也라 三畫已具하여 八卦已成이면 則又三倍其畫하여 以成六畫而  
於八卦之上에 各加八卦하여 以成六十四卦也라 此卦는 六畫皆奇요 上  
下皆乾이니 則陽之純而健之至也라 故로 乾之名과 天之象이 皆不易焉  
이라 元亨利貞은 文王所繫之辭니 以斷一卦之吉凶이니 所謂象辭者也라  
元은 大也요 亨은 通也요 利는 宜也요 貞은 正而固也라 文王以爲乾道  
大通而至正이라 故로 於筮에 得此卦而六爻皆不變者는 言其占當得大通  
而必利在正固니 然後에 可以保其終也라 此는 聖人所以作易하여 教人  
卜筮하여 而可以開物成務之精意니 餘卦放此하니라

初九는 潛龍이니 勿用이니라

【傳】 下爻爲初라 九는 陽數之盛이라 故로 以名陽爻라 理는 无形也라  
故로 假象以顯義하니 乾은 以龍爲象이라 龍之爲物이 靈變不測이라 故  
로 以象乾道變化와 陽氣消息과 聖人進退하니라 初九는 在一卦之下하  
여 爲始物之端하니 陽氣方萌하고 聖人側微하니 若龍之潛隱하여 未可  
自用이니 當晦養以俟時니라



【本義】 初九者는 卦下陽爻之名이라 凡畫卦者는 自下而上이라 故로 以下爻爲初라 陽數는 九爲老요 七爲少니 老變而少不變이라 故로 謂陽爻爲九라 潛龍勿用은 周公所繫之辭니 以斷一爻之吉凶이니 所謂爻辭者也라 潛은 藏也요 龍은 陽物也라 初陽在下하여 未可施用이라 故로 其象爲潛龍이요 其占曰勿用이니 凡遇乾而此爻變者는 當觀此象而玩其占也라 餘爻放此하니라